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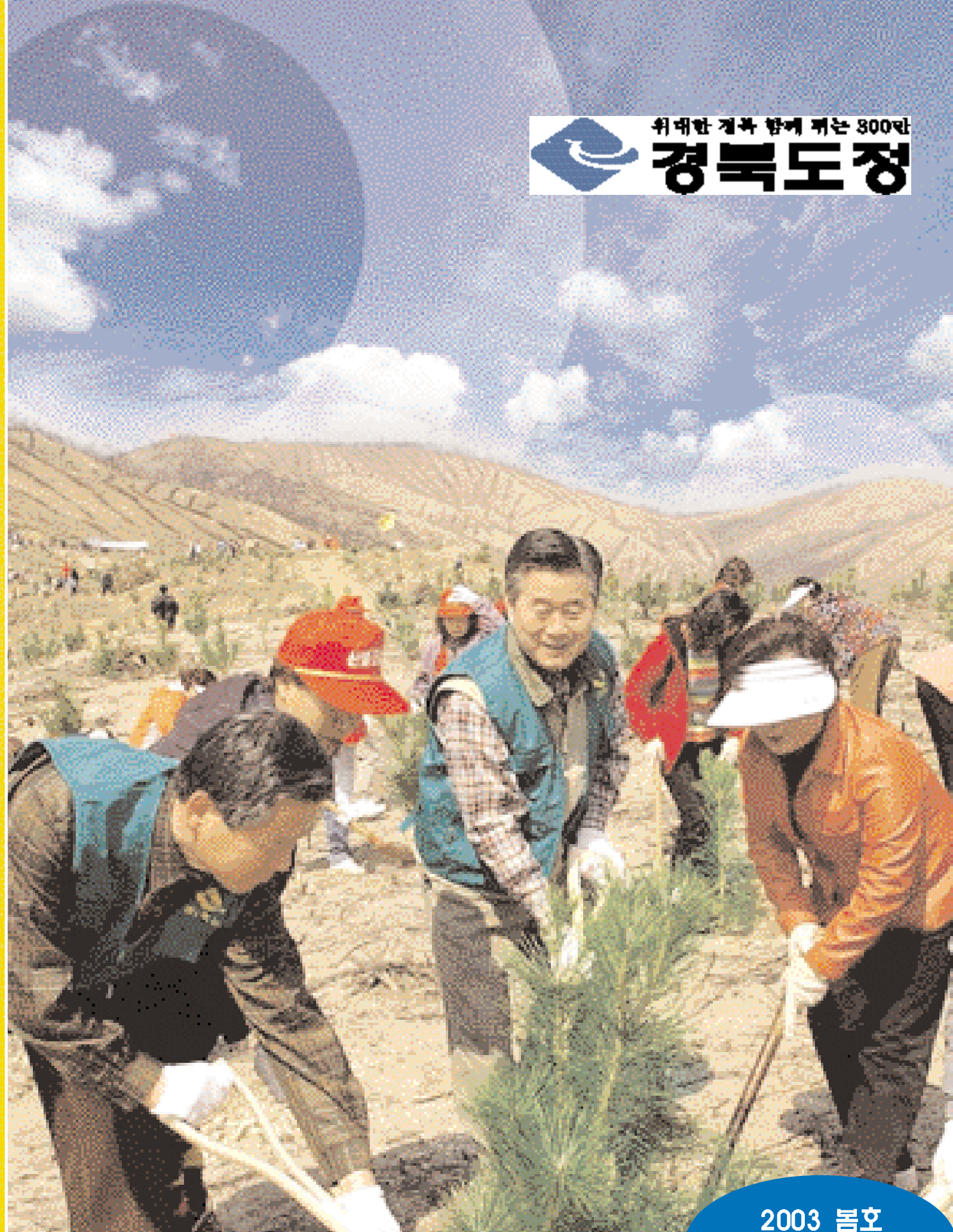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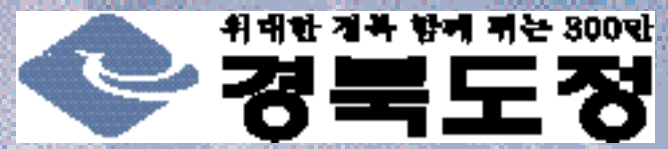


지금 사랑을 전하세요!
ARS:060-700-1212
060-700-0060

사랑의 열매, 달고 제시할까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Community Chest of KyongSangBuk-Do
www.kcsbc.or.kr



2003 봄호



산에서 미래를

포항시 흥해읍 금장리에서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실시

도에서는 치산녹화 30주년을 맞이하여 「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1개월간을 범도민 나무심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등으로 파괴된 산림의 복원조리를 실시하고 낙동강유역 물관리를 위한 수원함양 활엽수림을 조성하는 등 녹화숲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심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3일 포항시 흥해읍 금장리 칠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해송 4년생 15,000본(10ha)을 심는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U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를 상징하는 도화거리 조성 등 기념 테마거리가 조성되고 지역별로 나무 나누어주기와 도민 내나무 갖기운동이 전개된다. 🌳

Contents

2003 봄

2 "천마의 꿈"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8.13 ~ 10.23)
72일의 문화체험이 시작된다!

6 국토균형발전의 키워드, 동해안 개발
국토균형발전, 이제는 동해안이다

8 첨단기술과 접목 통한 한방산업 육성
도내 북부지역을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10 경북의 春 축제
화사한 봄꽃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제한마당

13 2003년 농정시책설명회 개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 적극추진

14 도정이모저모

19 건강이야기 -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외출을 줄이고 손발을 깨끗이

20 알아답시다

22 첨단벤처기업의 요람, 경북테크노파크
기업 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산업·경제 활성화의 미드필드

24 가 볼만한 곳 -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경북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수려한 풍광에 감탄사가 절로~

26 2003, 달라지는 법령·제도
예비군 병역 동원훈련 소집 인터넷통해 예고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 전입신고로 자동처리

28 도정단신

30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3 봄호(통권 356호)
발행처: 경상북도
발행인: 이의근
편집인: 우병윤
발행일: 2003년 4월 14일
인쇄처: 흥익출판인쇄사
☎(053) 356-0088
문의처: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950-3058, 2031 FAX.956-4926





에밀레 - 천년의 소리(주제공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의 소리가 「천마의 꿈」 속에서 날개를 편다. 신라의 상징이자 '희생을 통한 영원한 사랑'의 테마를 안고 있는 「에밀레 증」의 탄생설화가 전통음악인 판소리, 정가 등과 현대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위에 새롭게 태어난다. 코러스와 라이브연주단의 앙상블, 태권과 선무도를 응용한 화려한 군무와 현란한 영상이 만들어내는 환타스틱하고 역동적인 무대는 천년전의 감동을 이어줄 것이다.



천마의 꿈 - 회랑 영웅전(주제영상)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야심작! 신라인의 사랑, 찬란한 신라문화를 드라마틱한 환타지로 구성하여 단순한 문화재 복원과 그치지 않고, 오락적이고 다이내믹한 영상으로 생동감 넘치는 흥미만점의 최첨단 4D 환타지 SF액션애니메이션. 영원한 신비의 베일에 가려있는 회랑영웅 「기파랑」의 영웅적인 삶과 전설의 피리「만파식적」, 그리고 「원화낭자」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 못지 않은 주변캐릭터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넘치는 매력, 그들이 펼치는 우정과 의리, 음모에 맞서 싸우는 지혜와 용기, 애틋한 로맨스가 치밀한 구성으로 숨막히는 재미를 전해준다.

세계캐릭터·애니메이션전 「천마에서 마시마로까지」

세계 각국의 신화와 설화를 상징하는 천마에서부터 현대의 대표적 캐릭터를 상징하는 마시마로까지 다양한 전세계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이미지화하고 이를 상징적 조형물과 퍼포먼스, 첨단 디지털 기술과 어우러지도록 하여 신비와 환타지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

난장 트기 (전통저자거리 조성 및 민속 놀이마당)

엑스포공원에는 신라인의 삶과 꿈, 애환이 스며있는 저자거리가 펼쳐진다.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저자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신명나는 놀이판을 열어 전통생활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 신라인이 되어 주막, 대장간, 점집, 난전이 있는 장터를 돌아보며 전통씨름, 주렁구놀이, 토기공예, 짚공예 등을 체험해 보는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외국인유치 우수여행사 포상제」 실시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를 선발, 포상금을 지급하는 「외국인유치 우수여행사 포상제」를 실시기로 했다. 국내 600여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행사기간인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72일 동안의 모객실적 순위에 따라 6개 업체(지역 3, 기타지역 3)를 선발하여 순위별로 시상하는 방안으로, 일본지역의 경우 최우수 1천5백만원, 우수 8백만원, 장려 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기타지역의 경우 최우수 7백만원, 우수 4백만원, 장려 2백만원 등 총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균형발전, 이제는 동해안이다!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에서 동해안을 포함한 U자형 국토개발 추진해야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도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동해안을 중점 개발하여 U자형 국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동해안지역 발전이 지체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포항 영일만신항 조기건설, 울진 공항과 울릉 경비행장 건설 추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과 울진 일원에 해양과학단지 조성, 포항에서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 등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해양과학단지 조성

우리 도는 울진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유치로 계기로 그 일원에 해양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바다생물 자원에 관한 연구, 심층수 개발 등 해양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족자원에 관한 연구를 통한 바다목장화 인프라 구축, 어촌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지 조성 등 복합적인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울진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물산업과 안동~영주~상주를 잇는 농업생명산업을 연결하는 「바이오벨트」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울진군 죽변면 한국해양과학단지 조성 예정지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

도에서는 포항과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2005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까지 180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해중부선 철도가 완공되어 북측 철도와 연결되면 포항에서 출발한 열차가 영덕, 울진을 지나 원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곧바로 연결되어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철도 연결은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남북통일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교통 오지인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영일만신항 건설

수출·입 화물 등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포항 영일만신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부설과 연계하여 영일만신항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와 21세기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집중개발 할 계획이다.



포항 공대 ·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

도에서는 포항을 철강 신소재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특구」지정 등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공대와 포항테크노파크에 「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와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첨단국가산업단지」유치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내 북부지역을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청정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 특화산업으로 육성



난 3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약무, 복건직, 공중보건한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한의약진흥팀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 국제한의약박람회 개최,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기획단 구성·운영, 한방자원개발원 신설 추진 등 한방자원산업의 발전 시책을 총괄기획하고 한방 관련 행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리 도는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한방자원개발원 및 한의약청의 지역 유지를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 관련 지역 대학

과 민·관이 참여하는 「한의약산업육성 공동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한방자원 활용극대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한방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방산업 육성은 도내 북부지역의 전통재래산업인 한약재 생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한약재 재배기술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새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방자원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 한방자원 및 천연물 표준화 및 규격화 선도 등을 통해 미래 동양의학 연구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한방산업 육성도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전략특화산업의 일환으로 한약의 재배, 연구부터 가공생산, 체험 관광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한방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한약재 재배면적이 2,200ha로 전국의 27%, 연간 생산량 9천톤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라는 장점을 적극 살리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추진배경이다.

또한 한방의 고급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해 고급화된 한약재의 생산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현대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보완의학으로서 전통한방요법이 각광받고 있는 등 한방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도내에 풍부한 한방자원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한방자원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 미 상주에 추진 중인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전통약초마을 조성과 한방자원개발센터 건립에 착수하고 한방바이오벤처단지, 헬스투어, 실버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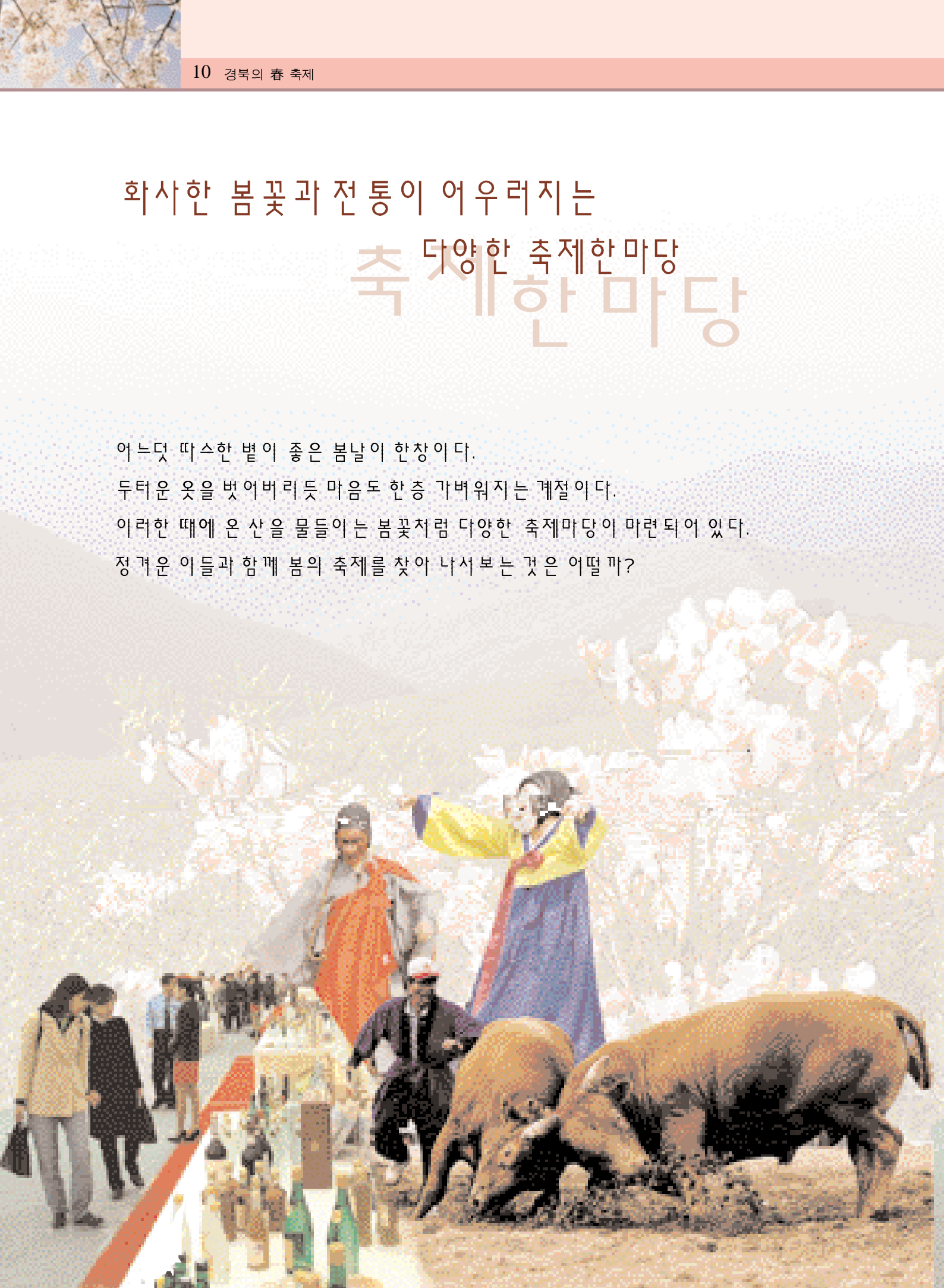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역관광과 연계한 한방헬스투어 개발, 영천 한약재시장 축제 개최, 한방산업 및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2003대구경북국제한의약박람회」개최 등 한방산업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인 「한의약진흥팀」을 구성하여 지

화사한 봄꽃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제한마당 축제한마당

어느덧 따스한 봄이 좋은 봄날이 한창이다.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듯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는 계절이다.
 이러한 때에 온 산을 물들이는 봄꽃처럼 다양한 축제마당이 마련되어 있다.
 정겨운 이들과 함께 봄의 축제를 찾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 제4회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 기 간 : 2003. 4. 18 ~ 19
- 장 소 :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 상가 일원

황악산은 김천시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소백산맥 가운데 위치하며 학이 많이 찾아와 황학산이라 불리었으나, 직지사의 현판 및 태리지에 황악산으로 되어 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깊은 계곡에 옥같이 맑은 물이 이름난 곳으로 무엇보다 신라 눌지왕 2년(418년) 아도화상이 세웠다는 '직지사'가 유명한 곳이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로 유명한 이곳에서 갖가지 산나물로 마련한 독특한 음식들을 선보이는 "제4회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직지사 상가 일원에서 열린다. 연예인 초청공연과 더덕파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농·특산물직판장을 운영하며 행사기간 중에는 주변 식당가의 음식요금의 10% 할인을 준다.

* 안동 하회마을 물놀이 축제

- 기 간 : 2003. 4월중
- 장 소 :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일원

안동의 물놀이 축제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을 기념하고 하회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축제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일원에서 4월중에 개최되며, 무형문화제 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전통혼례, 안동포 제작 시연과 포졸·양반행렬 등 전통적인 볼거리는 물론 각 종연주회 등의 무대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놀이마당에서는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연날리기·투호와 소달구지 타기, 찰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되어 직접 체험하는 관광을 할 수 있다.

* 영주 소백산 철쭉제

- 기 간 : 매년 5월말경
- 장 소 : 영주시 풍기읍, 순흥면

영주시에서는 매년 5월말경 소백산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에 “소백산철쭉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행사로써는 장승막기대회, 철쭉꽃길 걷기대회, 통일기원제, 아생회전 시회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오르는 즐거움이 있는 산, 소백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테마로 소백산철쭉제가 개최되며, 푸른 주단 위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연분홍색의 철쭉 꽃길을 걸으며 소백산의 웅장함을 감상할 수 있다.



* 청송 주왕산 수달래제

- 기 간 : 매년 5월
- 장 소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둘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철쭉과 산철쭉은 구분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식물이 모두 진달래과의 같은 속(진달래속)에 속하는 비슷한 식물들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청송 주왕산에서 열리는 ‘수달래제’의 수달래가 바로 산철쭉이다.

매년 수달래가 만개한 5월에 주왕산에서는 문화행사로 전야제, 산신제, 산악마라톤, 등반대회, 사진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름다운 폭포, 병풍을 두른 듯한 암봉, 그리고 웅장한 송림이 어우러져 있는 주왕산의 주방전변에 군락을 이룬 수달래에 관련된 전설에서 축제명을 채택하여 '86년부터 이어오는 지역축제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적극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등 9대 중점 농수산 시책 마련



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과수 농업의 경쟁력제고 등의 중점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1월 28일 도 농업인회관에서 시·군과 농정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대표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9대 중점 추진 농수산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대 중점 농수산 시책 방향은 전문기술·경영인으로서의 농업정예인력 육성,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전망 구축, 친환경농업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천후영농 기반구축, 세계를 지향하는 수출농업 육성,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물 생산·유통체계의 선진화,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투자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정정화로 경쟁력 강화,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어기반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8개 사업에 5,0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육성,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의 해외 개척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억 3천 9백만 불로 설정, 이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기로 하였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포도품질 고급화와 우량모목 공급 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25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소비패턴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90%이상 확대 재배하고 오리·우렁이·쌀겨·활성탄·계르마농사용 농법 등 특수농법으로 품질차별화를 통하여 경북쌀을 브랜드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IT, BT 등을 기존 농업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농업」을 2005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하고 농고·농대생 등 우수한 농업인력의 농촌정착을 높이기 위하여 농과계 졸업생에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시기양양과 부분별 최고농업기술 전파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명장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저음으로 축산(김성근씨, 영천시), 과수(홍성일씨, 군위군)분야의 명장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자원봉사를 통한 경북사랑운동」 본격 추진 “함께신나리자원봉사포털시스템” 서비스 시작

도에서는 올해를 「경북 자원봉사의 해」로 정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경북사랑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하고, 지난 3월 3일자로 새마을과를 새마을자원봉사과로 민간협력담당을 자원봉사지원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23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도 단위 자원봉사센터구축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곳을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연계 역할과 도민들에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함께신나리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w-sinnari.gb.go.kr>)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힘과 용기를 전국 최초 「인턴공무원」 채용



도에서는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을 위하여 올해부터 「인턴공무원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도내 9개 대학교별로 추천을 받아 31명을 채용하여 3월 10일 도청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3개월 기간으로 각자의 전공과 취미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여 지방 행정을 체험하게 하였다. 이는 한시적인 일자리이지만 사회경험을 쌓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 국제감각 등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오는 8월에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U대회 등을 대비하여 외국어 명예통역안내원 사업과 지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도내 300여 개소의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 사업을 펴기로 하는 등 올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34억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7천2백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근 도지사, 일본 TORAY그룹 방문 투자유치활동 펼쳐



이의근 도지사는 3월 12일 일본 도쿄의 TORAY그룹 사카키바라 CEO를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소개하고 투자의향을 물었으며, 사카키바라 CEO는 IT 신소재 생산시설 건설 등 지속적인 투자에 관심을 나타냈다. TORAY그룹은 섬유, 화학, IT 신소재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 14조원의 80년 전통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난 '99년 (주)새한과

합작으로 구미에 도레이새한(주)을 설립하여 지역고용창출 및 IT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안에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5만평을 IT산업 부품소재 첨단기업 위주로 임대 완료하고 내년에는 1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여 구미의 IT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경북테크노파크 특화센터 서울사무소 개설
지역벤처사업의 수도권 영업활동지원 및 지역투자유치 교두보 역할

경북테크노파크는 2월 11일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하여 영남대 이상천 총장,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련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건물 5층에 지역벤처기업의 영업활동과 지역벤처투자유치를 지원할 70평 규모의 경북테크노파크 특화센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서울사무소 개설은 지역벤처기업들의 '기술·경영관련정보수집', '자금조달', '기업홍보'는 물론 성장기업의 수도권지역 영업활동 등 사업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며, 영남대학교 창업보육 및 기술이전센터의 서울사무실도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지역벤처기업의 취약한 정보수집 및 마케팅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02-6009-3601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희망2003이웃돕기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 40억 돌파!
전년대비 143% 증가, 개인·사회단체 등 소액기부자 증가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 '사랑의 자투리 991모금운동', 등 「희망2003 이웃돕기 캠페인」을 통한 성금모금 결과 42억9천3백여만원을 모금하여 저단해 30억7백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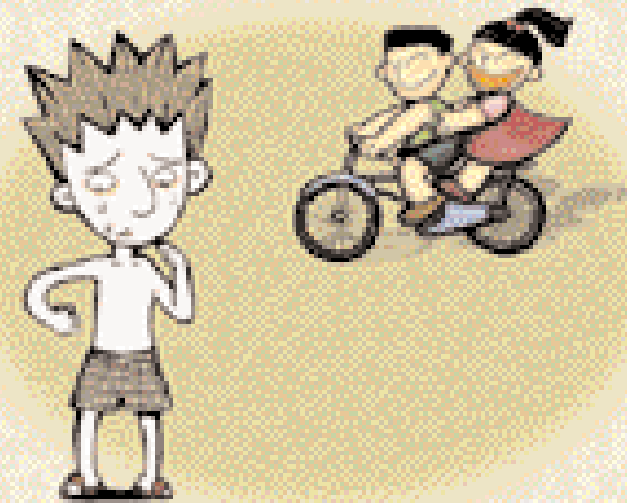
외출을 줄이고 손발을 깨끗이

봄이 되면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레르기는 진드기·먼지·화학물질 등 다양한 외부물질에 대한 과민반응 때문에 일어난다. 봄철에는 꽃가루와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알레르기 질환에는 완벽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외출을 줄이며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

갑작스런 재채기·콧물·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은 없다. 또 눈이 가렵거나 충혈돼 눈물이 나며 천식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증세도 나타난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고 황사 등으로 먼지가 많아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날에는 안경을 쓰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도 창문을 닫는다. 집에 들어올 때는 옷을 털고 바로 세수를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황사와 꽃가루가 원인이다. 눈이 간지럽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몹시 거북하며, 눈물을 자주 흘리고 흰자위가 충혈된다. 눈곱이 많이 끼며 눈에 심한 통증이 오고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증세가 심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한다.

천식

꽃가루·먼지·곰팡이·황사·담배연기 등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기도를 자극, 기침이 갑자기 심해지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병으로 어린아이에게 잘 발생한다. 봄철에 감기가 유행하면서 천식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는 수도 있다. 가래가 심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신다. 천식환자는 오염물질이 많이 깔리는 새벽에 외출을 피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저소득 모·부자가정 150세대 추가지원

도에서는 올해부터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난해보다 150세대가 많은 1,150여 세대가 학자금, 아동 양육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재산을 보유하면 소득이 없어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6세미만 아동 양육비 1일 568원, 초등 학생 학용품비 1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전액과 대학입학생 등록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 가구에 대하여 세대당 월동연료비 20만원(동절기 월 5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되었다.



모·부자가정 추가지원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053-950-2532)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실시

도는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치료하여 성장발육의 장애와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내 298개 중학교 1학년생 33,9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검진방법은 척추측만도 촬영 카메라인 모아레(Moire)촬영기를 장착한 검진 차량으로 학교별 이동순회 검진을 실시하게 되며, 검진비는 총 1억 4천만원으로 1인당 5,000원의 검진비가 소요되며 이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검진결과 측만도가 심한 학생은 재검진을 실시하고 2차 정밀검진 대상자는 시·군 정밀검사 지정의료기관 31개소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척추측만증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척추가 옆으로 치우쳐 측방으로 휘거나 회전이 일어난 것으로 성장이 빠른 사춘기에 잘 나타나며, 이는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고 있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운동시간이 적어지고 책상과 의자높이가 체격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척추에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척추측만증 검진에 관한 상세한내용은 도 보건위생과(950-2432) 및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053-950-2432)

9월 30일까지 「경북 아이디어 대상」 공모

도에서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경북 아이디어 대상」을 제정하고 도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2003년 9월 30일까지이며 도내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우편접수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각 시·군·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응모서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 응모는 도 홈페이지(www.gyeongbuk.go.kr/열린도정/공모과제)를 이용하면 된다.

도민과 대학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도민은 정책건의 및 지역발전사항이며 대학생은 도정 발전을 위한 학술논문(일반행정·정보통신·문화관광·농업·경제교통·사회복지·지역개발 분야 등)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각 부문별 시상금은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이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11월에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게 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53-950-2943)

포장양곡 품종 및 도정일자 표시 의무화

포장하여 판매되는 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품종과 도정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에서는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 높여가기 위하여 현재 생산년도, 원산지, 도정일자, 제조일자, 주소, 전화번호만 표시하게 되어있는 것에 품종과 도정일자를 의무표시사항으로 추가한다.

품종은 품종명 또는 일반계로 표시하고 품종혼합 시에는 혼합된 품종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도정년월일은 쌀로 도정한 날짜를 표시하고 「○○년 ○○월 ○○일」 또는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 도정년월일 04년 01월 01일)

이번 쌀 포장표시 개정은 RPC 등 쌀가공업체의 일부 시설보완 등 적응기간이 필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53-950-2271)

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산업·경제 활성화의 미드필드

창업, 컨설팅, 자금지원, 시장개척, 홍보 등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지난 '98년 8월 산·학·연·관의 협력모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한 경북테크노파크(<http://www.ktp.or.kr>)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TechnoPark)'는 1950년대 후반 Industrial Park 즉, 산업단지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대학의 기술인력과 만나야 산업이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Science Park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Techno Park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산업자원부가 6개(경북, 대구, 광주전남, 충남, 송도, 안산) 시범테크노파크를 지정하여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00년 포항, 부산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8개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흔히 축구경기에 비유하여 산업·경제 활성화의 미드필드(허리)라고 설명하곤 한다. '기업'이 축구경기의 맨 앞에서 활약하는 '공격수'라면 대학, 연구소는 맨 뒤를 받쳐주는 '수비수'이며, 테크노파크는 '수비수'와 '공격수'를 연결하여 공격수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허리'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 형태로 현재 영남대학교내(경산시 삼풍동) 총 4만6천평의 부지 위에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역기술혁신사업, 창업보육사업(벤처기업육성), 정보화혁신사업, 교육훈련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의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시범기간 4년동안 3차례나 전국테크노파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의 한국형 모델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4년동안 제1시험생산공장, 제2시험생산공장, 본부동 준공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 핵심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지원사업과 연구개발평가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운영사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단지조성사업은 '시험생산공장' 2동 준공과 '본부동 준공' 등 전국 테크노파크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테크노파크의 하드웨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지내 섬유기계연구센터, 태양열에너지개발센터, 포스트-비아이동(POST-BI) 기업부설연구소, 성장


기업 생산공장 등 나머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테크노파크 사업분야 중 벤처기업육성(인큐베이팅)사업은 '섬유' '자동차' '건설업' 등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비취볼 때 경기침체의 새로운 돌파구로써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부화장'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벤처기업육성사업은 올해 말까지 총 140여개의 기업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현재 70여개의 유망벤처기업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인력은 총 1,360여명에 달하며, 매출 총액으로는 1,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경북테크노파크의 벤처기업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내·외부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 컨설팅, 자금지원, 시장개척, 홍보 등 one-stop service 체제를 가동한다는 점과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주)앞선사람들은 컴퓨터자동염료조색기(CCK)를 미국, 터키, 중국 등에 20억원 이상을 수출하여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경북스타벤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음성인식솔루션을 개발하는 (주)CLS는 지난해 11월 도에서 마련한 남미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브라질 블라데스코사에 '음성인식시스템'을 120만불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경북테크노파크의 주력사업중 하나인 정보교류협력사업 분야에서는 2000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 정보기술(IT)관련 업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첨단 멀티미디어장비를 구축하고 초고속망(45M급)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굴뚝산업에 IT를 접목하기 위해 홈페이지 무료구축사업과 정보화리더스아카데미, 사이버강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경북테크노파크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기업 특히 첨단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제1공장 내부



▲ 제2공장 전경



‘경북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수려한 풍광에 감탄사가 절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온갖 모양의 바위들과 울창한 산림이 수려한 풍광을 이루고 있어 ‘경북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금오산(976m). 구미의 남서쪽에 우뚝 솟은 금오산엔 지금 봄이 한창이다.

금오산은 바라보는 방향과 보는 이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낙동강 쪽에서 보면 거인상이며, 선산에서 보면 붓끝처럼 생겼다. 김천 개령지역 사람들은 도둑이 무엇을 훔치려는 모습 같다고 해서 적봉이라 하고, 인동 사람들은 부처가 누워있는 모습에 비유해 와불산이라 한다.

금오산을 찾아가려면 승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구미.C에서 좌회전~33번 국도~금오산 4거리~금오산으로 진입하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구미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12번, 12-1번 시내버스(평일 30분, 휴일 15분 간격 운행)를 타면 된다. 일행이 좀 많은 경우라면 기본요금에서 약간 더 추가되므로 택시를 타는 것도 괜찮다.



산행은 금오산 종합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말 대학자인 야은 길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채미정을 지나 20분 가량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케이블카 종점인 해운사에 이르고, 해운사 옆 수직절벽 중간에는 도선굴이 있다. 신라시대 말기 도선이라는 고승이 이곳에서 참선하여 도를 깨우쳐 풍수지리설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야은 길재선생이 이곳에서 수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 굽어보는 금오산과 구미시내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도선굴에서 내려서면 높이 27m의 수직절벽에서 하얀 포말을 만들며 떨어지는 대혜폭포를 바라보며 폭포 뒤로 난 급경사 길을 20분 정도 오르면 찬물이 솟는 샘터와 애홀비가 나타난다.


애홀비 위 삼거리에서 왼쪽 길을 따라 20분 정도 가면 금오산의 숨은 명소인 보물 제490호 마애보살입상에 닿고, 곧이어 수직절벽 아래 아슬아슬하게 축조된 약사암에 이른다. 이곳은 약사봉 아래 있는 암자로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지리산 석불삼구 중 일구가 법당에 봉안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약사암에서 서북쪽 수직절벽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석문을 빠져나오면 바로 정상이다. 정상에서는 낙동강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오고 가야산에서 수도산으로 뻗은 능선이 파도가 일렁이듯 보인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산불방지기간으로 주등산로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오산을 즐기고 난 후에는 인근의 선산 도리사와 낙산리 고분군, 금오서원, 일선리 문화재단지 등 다양한 전통문화 유적이 볼 만하다. 또한 낙동강을 끼고 도는 25번 국도도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고, 천생산 등 야트막한 산들도 봄철 가족 산행지로 인기가.

완연한 봄을 찾아 여행을 떠나 보자. 

< 문의 :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054-450-5760 >

예비군 병역동원훈련소집 인터넷 통해 예고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전입신고로 자동차

병역법 (시행 : 2003. 1. 1)



- 병역동원훈련소집 인터넷 통해 예고 → 개인별 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국가유공자의 병역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200원 → 면제)
- 대학입시 응시자 입영기일 연기 (21세 되는 해의 2월 말까지 → 21세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인감 증명법 (시행 : 2003. 2. 26)

-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서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 발급 (민원인 신분증 지참, 인감도장 지참 불요)

지적법 (시행 : 2003. 1. 1)

-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발급 →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등재하여 병행 발급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예관한조례(시행 : 2003. 1. 6)

-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 주민수 하향 조정 : 전년도 12. 31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 → 전년도 12. 31 현재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소득세법 (시행 : 2003. 1. 1)

- 근로소득자 특별공제 한도 확대
 - 보험료공제 : 70만원 → 100만원
 - 의료비공제 : 300만원 → 500만원
 - 교육비공제 - 유치원생 : 100만원 → 150만원, 초중고생 : 150만원 → 200만원, 대학생 : 300만원 → 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자상환액 : 300만원 → 60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03. 1. 1)

-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자동차처리제도 도입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일원화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때에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승용자동차 차종변경 등록기간 제한 해제 - 2001년 1월 1일 자동차의 종별 분류기준 변경으로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승차정원 7인 내지 10인 이내의 자동차는 2001. 12. 31까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없이 자동차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 2003. 6. 27)

- 가축전염병 발생신고자 신원보호 : 전염병 발생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 조치
-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교육 실시 의무 : 정부 및 축산단체가 농가에 대해 가축방역 교육을 실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 : 2003. 1. 1)

-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 중심에서 사과·배 등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해의 기준을 최대 풍속 14m/sec, 최대 순간풍속 20m/sec로 정의하던 것을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로 완화기로 함.(무사고 할인·할증제도 도입)

농지법 (시행 : 2003. 1. 1)

- 주말농장용 농지소유 및 임대 허용 :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1천 제곱미터(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유농지를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에 대한 예외를 확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시행 : 2003. 1. 1)

-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
 - 중장기 정책자금 이자율 : 연 4~5% → 연 3%
 - 연대보증피해자금 이자율 : 연 5% → 연 3%

전기사업법전기공급약관 등(시행 : 2003. 1. 1)

- 공공요금 변경·조정
 - * 전기요금 조정
 - 주택용 : 2.2% 인하(사용량 따라 월 220~3,650원 부담 감소)
 - 일반용(상가 및 공공기관) : 2.0% 인하(호당 월 4,870원 정도 감소)
 - 산업용 : 2.5% 인상(호당 월 63,200원 요금 추가부담)



- * 우편요금 :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 : 1,100원 → 1,300원(※ 등기우편물 1통(250g) 송달시 등기우편 수수료 1,300원+우편요금 190원 =1,490원 소요)



- *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
 - 기본료 : 15,000원 → 14,000원
 - 통화료 : 10초당 21원 → 10초당 20원
 - 매월 무료통화 : 7분 → 10분



수산자원보호령(시행 : 2003년 하반기)

-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2종 이상 자망 사용금지.

의료비지원사업지침(시행 : 2003. 1. 1)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 대상질환 6종 -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 대상질환 2종 추가 -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문화재 수리 보고서」 발간

도에서는 주요문화재 수리 자료에 대한 기록보존과 문화재수리기법의 전승을 위해 '98년부터 '99년까지 2년동안 도에서 추진한 220건의 지방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문화재의 연혁, 주변 건축물 현황, 상세한 수리내용,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담은 수리보고서를 발간, 문화재연구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 배부하여 고건축 등 문화재에 대한 귀중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산 노진환 소장 전적」 등 3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도는 3월 3일자로 「선산 노진환 소장 전적(善山 盧鎭桓 所藏 典籍)」·「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義城 梧峰宗宅 所藏 典籍)」를 도지정 유형 문화재로, 「수다사 건륭27년명 동종(水多寺 乾隆27年銘 銅鐘)」을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하였다.

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본격 추진

도는 지역정보화시대에 농·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5개의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의 2차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받아 오는 9월까지 마을의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하고, 4월에는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가축질병정보체제 구축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가축질병정보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도내 5,000여 호 축산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가축별 질병발생 정보와 방역대책 등을 실시간으로 축산농가에 휴대폰으로 알려 줌으로써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농가단위의 초동방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 유치 위한 현지답사 관광설명회(FAM투어) 실시

도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 2개국 여행업자들을 초청하여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코스를 개발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경북관광 현지답사 설명회(FAM투어)를 개최하였다.

영농현장 찾아가는 영농기술컨설팅 본격 실시

도 농업기술원은 2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을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컨설팅 요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는 「영농기술컨설팅의 날」로 지정하여 수출작목 중심의 영농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도는 2003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김천시와 청도군에 각 1개소씩 중고농기계의 구입과 수리, 사후봉사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 One-Stop Shopping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설치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전시장 및 점검정비시설 150평 이상, 수리장비로는 세척용장비, 도장 및 판금용장비, 시험장비, 점검·정비 및 수리장비 등 50종 이상의 장비를 갖추 계획이며, 사업비 지원은 국고25%, 지방비 25%, 사업자 자부담 50%로 총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중소기업 위해 기술지도사업 실시

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비 8천만원을 확보,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대상업체를 진단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 현장에 투입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의 역학조사상」 수상

도는 보건복지부가 전염병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활동 및 전염병 사전 예방에 공로가 큰 시·도에 대해 중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올해의 역학조사상」 시상에서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집단발병한 유행성농병에 대하여 최초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 소방력 확충

도는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소방서와 파출소 설치 및 119구조·구급대를 확대 배치키로 하고 올해에는 의성군과 군위군을 관할하는 의성군 봉양면에 의성소방서를, 영덕군 영해·창수·축산·병곡 등 4개 면을 관할하는 영해파출소 및 김천 아포, 영주 문수파출소를 설치하고 청송·청도·고령에 119구조·구급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176회 임시회 결산

「2003년 도정에 관한 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실국별 새해 업무보고 청취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 17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이의근 도지사로부터 「2003년 도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실국별 새해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한 안건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대책건의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추곡수매가인하방침에 따른 건의안
-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안



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

대구 지하철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 및 사고대책본부 위문

최원병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손규삼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의원 10여명과 장경곤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2월 26일 대구 지하철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도의회 방문

도민들의 의회견학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봉숙 대표를 비롯한 80명의 회원이 도의회를 방문, 김선종·정무용 부의장, 손규삼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회정치를 중시하고 의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사단법인 단체로 의회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의회활동 전반에 대한 체험과 학습을 장려하여 '입법부의 제자리 찾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의회사랑모임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정치참여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제177회 임시회 결산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및 각종 안건심사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3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 등을 실시하고, 3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자치발전특별위원회명칭등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도정질문요지



김주연 의원 (농수산위원회)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향, 시·군별 특화작목 육성책을 수립하여 집중 지원할 의향, 유교문화권사업 일환으로 칠곡지역에 향교를 설치할 의향, 공무원 해외연수 후 선진시책 및 신기술 도입 등 도정 활용실적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석호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도청 이전에 대한 견해 및 도청 실국을 분산 이전할 용의,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해소시킬 방안, 시·군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선 또는 통합을 추진할 의향, 고위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위 정년제를 도입할 의향,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준비정도 및 대책,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도의 대책, 비수매시 등급제 폐지에 대한 견해, 정부의 핵 폐기장 설치 추진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윤경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도청이전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일정계획,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독립법인으로 분리 및 예산편성 독립 의향, 가칭 '신라타워' 계획에 대한 극대화 방안,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 및 장기적인 대책,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문제 갈등해소 방안,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 국도34호선에 대한 조기 착수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우성호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지방분권기획단」운영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협의 여부, 안동지역에 밀집된 도립기관을 인근 지역으로 분산 조정할 용의, '95년 민선초기와 대비한 현재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현황, 한방자원산업화단지과 관련 대구시·경북도 협의체인 「한방바이오밸리 공동기획단」 구성 여부, 한방연구소를 약초집산지인 영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현준 의원 (행정 사회위원회)

도와 시군간 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경도대학의 지원육성 방안, 쌀생산 조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쌀생산 조정제의 전면적인 보완 또는 폐지요구에 대한 의견, 경북 북부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과 새로운 친환경산업 투자계획 등을 질문했다.



김순권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경북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중·대기업 본사의 도내 유치로 세수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필요, 경북지역에 과학특구가 없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므로 포항과학특구 지정이 필요, 도립의료원과 시·군에 있는 영세한 병·의원과의 연계한 공중보건조사 활용방안, 포항남부소방서 신설용의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장대진 의원 (행정 사회위원회)

향후 확대되는 조직 및 기능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간의 분권화의 기준과 수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지역별·직업별 등 구성방식 및 지방분권기획단의 지역혁신팀의 기능과 역할, 지역혁신방향, 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청이전을 추진할 용의, 경도대 사태 관련 교수임용비리 의혹 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한 안건

- 자치발전특별위원회명칭등변경안
-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견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경도대학의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지정을위한건의안
-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방분권 실천 위한 「지방분권기획단」과 「지방분권·혁신추진위원회」 구성
대구시와 공동 추진 제안, 지역 공동발전 위한 시너지효과 기대

도는 지방분권을 중앙지원이 아닌 지방 스스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시민단체, 문화·산업·여성계 등으로 「지방분권·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대한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한편 지역의 공동발전과 사업추진에서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5일 「지방분권실무기획팀」을 구성한 대구시와 함께 지방분권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시·도 상호간 분권실천을 위한 공동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터넷으로 지방분권 의견을 제안해 주세요!

도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민들의 도정참여 방안으로 '사이버참여도정'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청 홈페이지에 「지방분권한마당」을 개설한 것은 물론 사이버 도정모니터, 도정정보 웹메일, 사이버토론포방 및 설문조사 코너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각종 아이디어와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한마당」의 경우, 지방분권에 관한 각종 정보와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게시판과 지방분권에 관한 시도민들과 시민단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제언 사이트 등 각종 정책대안에 관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방법은 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에서 지방분권한마당을 클릭하면 된다.